

지역 소식 통

정읍시, 3월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본격 추진

정읍시가 시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월부터 총 18억9,198만 원(국비 80%, 시·도비 20%)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영유아 발달지원(언어·인지·정서 발달 교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심리상담, 음악·언어·인지·미술치료)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정신건강 토달케어(심리상담·일상생활 지원) △노인 맞춤 운동(유산소 운동) △실버미디어 프로그램(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17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총 78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70%(4인 기준 월 1036만7000원) 이하 가구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등급' 달성

고창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북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를 받아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섰다. 행안부는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에 대한 3개 영역 10개 지표를 평가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고창군은 공공데이터를 입지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표준 분석모델 정립 공모사업, 데이터 분석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데이터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앞으로 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친환경 쌀생산' 확대 나서

농업인 결의대회 ·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약... 2027년까지 1000ha로 지속 확대
국립식량과학원, 신품종 종자보급 · 현장컨설팅 등 상호 교류 협력 확대 추진

고창군이 친환경 농업인 결의대회와 식량과학원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쌀생산' 확대에 나선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친환경 벼 재배농가, 농협, 유통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친환경쌀 생산 확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창 친환경 쌀 재배 확대에 공감하고,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기술보급, 친환경 농업직불금 확대에 노력해 가기로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친환경쌀 재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고창군과 식량과학원은 친환경쌀과 가루쌀 재배 농업인에 대한 신품종 종



자보급 및 실증시험포 운영, 현장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현장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친환경 쌀 생산을 현재 230ha에서 2027년까지 1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 친환경쌀은 지난해부터 2년간 제주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등 833개교 10만9000여 명(2023년 기준)에 공급중이다. 또 수도권 지역 특판행사에서도 '식어도 맛있는 쌀', '퇴근을 부르는 쌀'로 입소문 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송암·여곡 단지에서 저탄소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 기존 영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로 감축해 생산하는 차세대 친환경 쌀이다. 논바닥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관행농업과 달리,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은 63%가 줄어들고 농업용수를 28.8% 절감, 수확량 10% 이상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광복 80주년과 3·1절을 맞아 애국지사인 호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의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부안군,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광복 80주년-3·1절 맞아 고제신 지사 · 이승호 지사 묘소 찾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광복 80주년과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6일 지역 대표 독립유공자인 고제신 지사와 이승호 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날 참배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의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고제신(1883~1943) 지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자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1910년 초반부터 부안 고부, 김제, 고창 등지를 주요 무대로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거나 독립 자금 마련에 힘썼다. 특히 1919년 상하이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군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승호(1890~1966) 지사는 1920년 상하이 임시 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으로 3600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고 지역에서는 빈민구휼에 앞장섰다. 권익현 군수는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통해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협업체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의 묘소 찾기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는 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공존전자자료관에서 독립유공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체육회,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엉망

2022년까지 주유기록 · 2023년은 6월부터 12월까지만 기재 · 2024년 없음

부안군체육회가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최근 3년간 부안군체육회 공용차량 운행에 대해 청구한결과 2022년까지는 주유기록되고, 2023년은 6월부터 12월까지만 기재하고 2024년은 없다는 것. 부안군체육회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행일지 작성, 주유기록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공용차량이 2대로 늘어난 2024년에는 운행일지에 주유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주유기록이 기록된 2022년과 2023년 운행일지에도 주유기록과 증빙서류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6월 17일 운행일지에 전북도민체전 전산교육을 위해 전주에 있는 전북체육회를 방문하고 5만 원을 주유했다는 주유기록이 있지만 첨부된 카드 영수증은 같은 날 오전 10시 47분 같은 주유소에서 6만원 2분과 오후 1시 35분 다른 주유소에서 5만원 1분 등 총 3번의 카드 영수증이 첨부돼 있다. 공용차량이 1대뿐인데 하루에 3번에

걸쳐 총 17만원어치를 주유한 셈이다. 같은 날 부안읍과 행안면 각기 다른 주유소를 오가며 3차례 주유를 한 것이다. 당시 운행거리가 119km라고 운행일지에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 주유횟수와 금액으로 유류비 부정사용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또한 2023년 8월 3일 운행일지 경유지 및 목적지에는 물품구입이 부안읍을 두차례로 기재했지만 첨부된 카드 영수증 주소는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주유소로 첨부돼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파크골프장 등 지역 현안 논의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5일 부안군을 방문한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동진강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동진강(L=19.2km)은 부안·정읍·김제를 지나 새만금으로 유하하는 하천이며 1927년 동진강으로 최초 고시돼 2000년 5차 동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기상변화 및 수문·수리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청에서

는 2023년 10월부터 동진강 상·하류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다. 하천 정책이 기존 치수 중심에서 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 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해 치수·친수 병행으로 바뀌고 있어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에 대한 군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송호석 청장을 만나 동진강 하류권역 기본계획

수립 시 동진강 고수부지에 친수지구 지정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동진강 하류는 새만금, 부안, 김제, 국도 23호선 등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시기에 부안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 ·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정읍시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LH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입주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총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취약계층을 돕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

입 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는 3억3,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 신혼부부+1자녀 이상 5,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